

사유가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을 낯설게 바라보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. 다시 말해, 감정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나를 지켜보는 내가 생기게 된다.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에 숨 쉴 틈을 주는 사유의 힘이다.